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財務局

日時 1995年11月24日(金) 午後3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15時 30分 監査繼續)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에 대한 2日次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어제 財務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면서 質疑나 監査를 마치지 못한 事項에 대해서 오늘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 되신 質疑 또 監査 資料를 바탕으로 質疑를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희가 資料를 준비를 시킨 것이 있는데 그 資料를 財務局에서 어디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資料를 提示해 주십시오. 資料를 提示해서 委員님들 質疑하시는 동안에 다른 委員님들이 동시에 그 資料를 檢討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어제 契約關係로 해서 모든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 提出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資料에 대한

檢討를 할테니까 그 資料를 提示를 해 주시고,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시는 동안에 그 資料 檢討를 委員님들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質疑를 하지 않으실 다른 委員님들께서 檢討해 주시기로 하고 이 時間에 質疑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가 要請한 資料가 다 왔는지를 먼저 檢討를 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의 異常有無는 재무국에 質疑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어제 隨意契約 件.....

○會計課長 林綵瑾; 그것을 答辯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答辯드릴까요?

○委員長 文錫珍; 네, 그러면 隨意契約 관계부터 먼저 答辯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다른 委員들도 檢討를 해 주세요.

答辯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落札率 같은 것은 實務事項이기 때문에 會計課長이 答辯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會計課長 林綵瑾; 어제 李廷義委員님께서 質疑하신 競爭入札을 시행한 施設工事 등에 평균 落札率이 85%선인데 비해서 隨意契約을 하고 있는 몇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資料에 나와 있는 25번부터 38번까지는 隨意契約을 했는데 99%선에서 낙찰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으로 현재 우리 서울市에서 시행하는 각종 工事의 入札은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 本部, 그 다음에 事業所, 區廳 또 순수하게 우리 本廳 이렇게 해서 部署別로 經理官이 別途로 指定되어서 運營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競爭入札을 했을 때 85%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95年 7月 6日 이전에 우리가 100億원 未滿의 建設工事を 한 다든지, 10億 未滿의 전문 電氣通信工事 혹은 用役은 95年 7月 6日 이전의 賣 豫算會計法施行令 제99조에 의해서 落札하는 방법이 金額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로. 그래서 豫定價格의 85% 이상을 쓴 入札者 중에서 豫定價格의 85%이상 되는 사람으로서 바로 85%에 最接近者, 이 사람들을 落札者로 결정하도록 制度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8%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工事を 할 때 公開競爭入札에 부쳤을 때는 85%라고 하는 제한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85%에서 바로 직상자를 落札者로 결정하기 때문에 85 %바로 넘어서 결정이 된 事項입니다.

그 다음에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工事的 隨意契約에 있어서는 99%선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낙찰률이 豫定價格하고 접근해서 상당히 높다 이런 指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工事契約 現況 別冊 25번 부터 38번까지 事項은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도 10월 21일 성수大橋 崩壞 이후에 서울特別市 都市施設安全管理本部에서 契約 체결한 漢江 橋梁 補修工事로써 國內外的 전문업체로 하여금 전부 다 각 橋梁을 安全點檢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기준에 專門家の 安全診斷에 따라서 완벽한 施工을 위해서 隨意契約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隨意契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公開競爭入札방법과는 달리 豫定價格을 쓸 때 經理官이 가능한 한 많이 돈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工事を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가지고 工事を 하려고 하고, 經理官은 많이 깎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높은 金額으

로 하고 우리는 자꾸 깎고 이러니까 그 갭이 차츰 줄어들어 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九老區廳에서 隨意契約한 分區廳舍 칸막이 施設 工事は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당시에 서울 特別市 本廳에서 分業을 하는 것을 주체로 해서 指導하고 監督하는 과정에서 95年 3月 1日字 衿川區廳 開廳이 임박해 가지고 하는 수 없이 구청에서 區廳長이 판단해서 구청의 經理官이 판단해서 隨意契約으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市政開發研究院에 관한 것입니다.

94年度 서울特別市 投資機關 經營實績 評價研究 用役을 왜 隨意契約으로 했느냐 하는 말씀도 指摘이 계셨는데, 이것은 公企業의 專門性 그 다음에 평가의 技術性 등이 요구되어서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 第3條의 規定에 의해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投資機關經營評價團을 市가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運營하는 내용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市政開發研究院과 隨意契約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市政開發研究院과 隨意契約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公開競爭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過去 豫算會計法施行令第99條에 따라서 豫定價格과 落札價格은 差異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隨意契約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 前次의 工事라든지 혹은 瑕疵의 不分明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特殊한 技術과 技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事項으로 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隨意契約을 했을 경우에 經理官은 公開競爭入札에 못지않게 豫定價格을 자꾸 깎고, 또 工

事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入札價格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 그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천상 公開競爭入札을 하는 것보다는 隨意契約을 했을 때는 落札率과 豫定價의 差異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答辯 다하신 것입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네

○李廷義 委員;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까.

○委員長 文錫珍; 네.

○李廷義 委員; 지금 25번부터 38번까지가 補修工事입니다. 診斷이 아니라 補修工事입니다. 補修工事인데 99.9%가 되었다, 나는 이것이 어떤 規定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答辯이 經理官은 깎으려고 했고, 工事 말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써내려고 했다, 그러면 豫定價를 다 얘기해 놓고 協商을 합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補修工事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0月 21日 聖水大橋 崩壞 이후에 서울市都布施設安全管理本部에서 전체적으로 橋梁에 대해서 각종 診斷을 했습니다. 그 診斷 결과에 따라서 補修가 필요한 것은 補修를 하도록 했을 때 隨意契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隨意契約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와 같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公開競爭에 부칠 수 없는 그런 補修工事였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公開競爭과 隨意契約과의 差異가 그런 의미에서 率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廷義 委員;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隨意契約의

타당성을 얘기했어요. 불가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市政開發研究院도 專門性이 있기 때문에 두겠다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29페이지도 보면 鷺梁津 近隣公園 造成工事, 造成工事が 경진종합건설 아니고는 할 수 없는지, 그런 논리는 맞지도 않고 緊急을 요하는 그런 事項이에요, 여기서. 隨意契約을 할 수뿐이 없었다라는 것까지도 분야에 따라서는 理解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緊急을 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緊急을 요할 수 없는 工事들이 많습니다, 지금 隨意契約으로 있는 부분들. 서울 市立美術館 內部 施設 外裝工事 99.1%에 삼덕공사에 주었는데 이것도 隨意契約으로 할 수뿐이 없는 특수성입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委員님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隨意契約을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行政體制가 隨意契約으로 할 것이냐, 경쟁계약으로 할 것이냐, 지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方針에 의해서 隨意契約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競爭入札을 부치겠다, 이렇게 局長線에서 결재나는 것도 있고, 다른 課長線에서 결재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방침이 먼저 서면 그 方針이 우리 서울特別市 會計課로 契約을 해 달라는 要請이 오거든요. 오면 저희들은 隨意契約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침은 主管部署에서 하고. 그것이 隨意契約으로 했을 때 法的으로 隨意契約이 가능한 金額의 범위내인지 法的으로 가능한 요건이 되는 것인지 하는 法律事項만 檢討를 會計課에서 하고, 각 부서 경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發注하는 部署, 예를 들어서 住宅局이면 住宅, 아까 말씀드린 文化觀光局이면 文化觀光局에서 이것은 隨意契約으로 하겠다, 隨意契約으로 안하겠다 하는 事由를 局長이 도장을 찍어서 모두 다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金額的으로나 지금 각 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豫算會計法이나 기타 契約에 관한 法律에 적합 여부만 판단해 가지고 契約을 해주기 때문에 政策的인 事項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갭이 왜 그렇게 差異가 나는 것은 公開競爭을 했을 때는 아까 85%하는 制度가 있고, 또 隨意契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公開競爭보다는 差異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앞으로는 가능한 한 隨意契約을 최대한으로 抑制하고 公開競爭으로 하는 方法으로 施行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아니, 지금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隨意契約으로 할 수뿐이 없었던 狀況이라고 前提하고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해당 局에서 隨意契約으로 하도록 해서 契約을 체결해 달라고 會計課에 要請을 해서 會計課에서 契約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그렇습니다.

○李廷義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契約할 때 豫定價를 公開해 놓고 契約합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아닙니다.

○李廷義 委員; 公開해 놓고 합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豫定價를요?

○李廷義 委員; 네.

○會計課長 林綵瑾; 그렇습니다. 工事を 할때는 금년 7月 6日 이후부터는 工事契約公開를 합니다. 과거 금년 7月이나 그 전에는 公開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이리이러한 工事

를 할 때는 豫定價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公開를 해 가지고 10개를 써서 公開를 합니다. 써 가지고 그 公開된 것 중에서 자기들이 任意로 추출을 합니다.

○李廷義 委員; 아니, 지금 隨意契約할 때?

○會計課長 林綵瑾; 隨意契約할 때 公開 안합니다.

○李廷義 委員; 隨意契約할 때 公開 안 하지요?

○會計課長 林綵瑾; 네, 公開 안 합니다.

○李廷義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公開를 안하는데 工事を 더 주겠다 못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99.9%, 98%, 97%가 나오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委員님 말이죠. 이것 하나를 理解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分任經理官로 豫價를 썼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가가 예를 들어서 5,000萬원인데 4,900萬원을 쓰면 저쪽에서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經理官이 예를 들어서 많이 깎을 것이다 판단해 가지고 거기다 바짝 또 써내면 그 깎이 자꾸 줄어들고 經理官이 100% 다 써 버리면 그 깎은 자꾸 늘어집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體驗한 내용인데 그 대신 흑만에 하나 委員님께서 서울市가 하든 그렇지 않으면 區廳에서 하든 각 事業本部에서 하든 豫定價格을 알려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委員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會計課長, 내가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公的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을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 契約이 전부 隨意契約 건은 豫定價格하고 거의 근사치 아닌가, 전부 96%, 97%, 98%, 99.9 %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99.9%라는 것이

아무리 유능한 다른 회사가 열번을 해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三尺童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애들도. 契約擔當者가 豫定價格을 얘기하지 않고는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會計課長 林綵瑾; 그것은 委員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受容을 할 수 없습니다. 擔當職員이 豫定가격을 알려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受容이 안 됩니다.

○李廷義 委員; 그러면 常識的으로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99%가 일률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豫定價格 얘기 안 하는데 99.9%가 나올 수 있습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豫定價格 이야기 안 합니다.

○李廷義 委員; 그러면 우리가 行政監査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受容해야 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豫定價格은 그 會計部署나 그 部署의 생명입니다.

○李廷義 委員; 그러면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會計課長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豫定價格은 절대 公開 안 합니다. 豫定價格은 절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李廷義 委員; 지금 85%의 근접치를 하더라도 가격이라는 것이 差異가 다 납니다. 그런데 豫定價格을 公開를 하지 않고 업체와 협상을 하는데 업체가 그 工事を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나 이 돈 안 주면 안하겠다 그런 배짱으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會計課長 林綵瑾; 隨意契約으로 할 때 隨意契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經理官이 돈을 5,000원을 豫定價格으로 써내면 그 자리에서 봉해가지고 봉한 상태에서 入札받으러 온 사람

하고 면담을 합니다, 수의로. 그러면 擔當公務員은 갖고 앉아 있고, 자기가 얼마 내겠다, 얼마 내겠다 계속 이야기하면 그 밑으로 내려 갈 때까지는 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李廷義 委員; 그러면 99.9%가 딱 내려 왔으니까 그때 OK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豫定價格보다 내려가면 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李廷義 委員; 내려갈 수 있으면 계약할 수 있다.

○會計課長 林綵瑾; 그렇습니다.

○李廷義 委員; 그러니까 계약이 豫定價格에 딱 내려 갔으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疑惑을 살 수뿐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工事가격이 5,000萬원인데 1億원부터 써내려 갑니다. 지금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1億부터 써내가지고 9,000萬원, 8,000萬원.7,000萬원 해가지고 딱 되니까 OK, 써. 그 얘기 아닙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示談으로 하거든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말을 계속해 가지고 豫定價格 보다도.....

○李廷義 委員; 말을 계속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실제 工事價格은 5,000萬원인데 한 8,000萬원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0萬원, 7,000萬원, 6,000萬원 하다가 5,000萬원 딱 되니까 스톱.....

○會計課長 林綵瑾; 4,900萬원 되면 됩니다. 되는데 制度가 그렇습니다. 制度가 그러니까.....

○李廷義 委員; 委員長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實務者와 對話를 할 수가 없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제가 答辯을 조금 드릴게요. 示誠 과정이 한 번에 公開入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豫定價格을 미리 정해 놓고 예를 들면 工事의 경우는 豫定價格보다 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싸게 하려고 하고, 저 사람들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示談을 하는 사람은 豫定價格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많이 받기 위해서. 그 가격보다 높이 쓰면 그것은 안돼, 그러니까 다시 써, 다시 써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우리 豫定價格 이하로 되면 스톱을 하도록 그렇게 制度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萬원 단위로 죽 내려가다 보면 豫定價格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담합제도, 시담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써내려 가다 보면 그 이하로 내려가면 수용을 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李廷義 委員; 그렇다면 사실상 99.9%내려갔으니까 制度에 의해서 했더라는 그 公務員의 자세라고 한다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公務員이 내 돈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면 그냥 하겠다는라는 安易한 자세라고뿐이 볼 수 없는 것이 入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人札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적정선에서 最低價格으로 해서 서울시 豫算을 줄이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入札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 우리가 공사계약을 隨意契約을 하는데 있어서도 緊急을 요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隨意契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公務員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96%도 있고 95%, 물론 隨意契約이 거의가 다 높습니다. 전부가 똑같이 99.9%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公務員과 계약자가 談合들 하지

않고는, 하여튼 컴퓨터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制度的인 問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것은 제가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委員長께서는 別途 調査權을 發動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責任糾明을 분명히 하는 決議案을 낼 것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緊急을 요하는 事項이 있고, 절대 그렇지 못한 事項이 있습니다. 隨意契約 내용을 즉 檢討해 보면 資急을 요한 事項이 있습니다. 緊急을 요한 事項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 專門性에 의해서 隨意契約을 할 수뿐이 없는 事項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事項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根據에 의해서 했는지 해당 局에 분명히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것에 의해서 契約을 한 經理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분명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일률편과적으로 隨意契約 件은 전부 豫定價格의 근사치, 99.9%라는 것은 도대체 契約에 상식적으로나 수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疑惑을 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委員長에게 정식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우선 動議를 성립시키기 전에 여기에 관한 다른 委員님들의 補充質疑와 또 意見도 동시에 받고 나서 動議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水華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鄭水華 委員; 鄭水華委員입니다.

금방 李廷義委員께서 緊急을 요한다는 隨意契約 관계 99.9%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公開競爭은 거의가 또 85%로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정가격이 외부와 통해졌는가, 안 그러면 85%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는지 다 85%네

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財務局長 權五虎; 一般競爭에 대해서 조금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豫定價格이라고 그러는 것은 설계가격은 업자들이 지금 알 수 있는 制度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工事入札하기 전에 事前에 設計書에 金額이 빠지고 재료까지 전부 다 나온 設計書를 그 사람들에게 提示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單價만 곱하면 設計金額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政府 單價가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러울 따름이지만 그 工事を 전부 곱해보면 工事 전체 金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工事 전체 金額에서 豫定價格을 정할 때 거기에서 몇 %를 낮추어서 經理官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設計金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設計書를 事前에 주기 때문에 設計金額을 알 수 있도록 制度化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낮추어 가지고 經理官이 이렇게 정했을 것이다 하는 判斷下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落札은 금년 7月 1日 이전까지는 85% 이상으로 제일 가까운 데 사람이 낙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85%수준에 전부 머무는 것이고, 거기에 넘어가면 금년부터는 88%수준에서도 머물도록 公開競爭에 관한한 落札價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制度化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問題가 없습니다.

그런데 隨意契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隨意契約이 85%나 한 70%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契約制度가 豫定價格보다 낮게 隨意契約을 해야지 높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높게 하는 것을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그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결정을 하더라도 현재 法的으로 아무 問題가 없고 또 그런 상태로 運營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隨意契約 사유, 아까 보면 緊急事由가 안 되는데 緊急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隨意契約審査委員會에서 타당여부에 대한 결정을 委員會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李委員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보자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제출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判斷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일괄적으로 그것은 留保를 해 주시고, 아까 소위 談合의 問題는 현재 隨意契約 示談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0%이상으로 隨意契約으로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 制度쪽에 상당히 問題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文錫珍; 李亮漢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李亮漢委員입니다.

契約에는 最低落札價도 있고 基準落札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隨意契約을 示談制度로 한다고 하는데 그 規定이 있습니까? 例規가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示認으로 하는데 示談하는 방법이라든지 業務便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示談에 대한 업무편람이라든지 規定集을 보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示談을 하는데.....

○會計課長 林綵瑾; 示談을 하는 데는 規定이 없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李亮漢 委員; 隨意契約하는 것은 豫算會計法에서도 나오니까 그렇지.

○會計課長 林綵瑾;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課에서 物品을 산다, 그 물품을 여러 가지로 사기 위해서 각 課에서 전부 다 見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民防衛課에서 어떠한 물품을 사겠다 하면 몇 개 會社로부터 이 單價는 얼마며 100개를 사는데 얼마나 하는 것은 3개가 되었던 2개 회사가 되었든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서 자기들이 방침을 결정할 때 그러면 개당 50원짜리로 할 것이냐, 개당 55원짜리로 할 것이냐, 개당 60원짜리로 할 것이냐, 그것은 50원짜리와 60원짜리, 70원짜리, 하나의 개당이지만 그 물품에 대한 質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主管 部署의 局長, 課長이 아, 55원짜리 있고, 50원짜리 있고, 56원짜리 있지만 비슷하니까 제일 싼 것으로 하자 이래서 55원 곱하기 100개 5萬 5,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넘어 오는 것입니다.

○李亮漢 委員; 會計課長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契約示方書 내용으로 보고, 契約示方書 보고 한다는 것은 그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그것이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經理官이 이것을 3%를 깎을 것이냐, 4%를 깎느냐, 5%를 깎느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2%에서 5%사이를 깎습니다,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고. 그것을 보아 가지고 5%를 깎아서 5,000원짜리 해서 4,850원을 써서 그 자리에서 바로 封해서 직원들한테주면 그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示談을 하는데 示談이 무엇이나 하면 經理官이 쓴 豫價보다도 밑으로만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經理官이 쓴 예가보다도 높게 하는 것은 經理官가 이것 가지고서 물건을 사라 지정을 해 주었으니까 그 창구에 앉은 公務員은 經理官이 써준 그 金額 밑으로만 내려가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계약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있는 것이지, 隨意契約을 할 때 經理官이 쓴 것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계약을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것을 몰라서 李廷義委員님이나 다른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契約을 해서 豫定價에서 豫定價 밑으로 내려가면, 물건을 팔 때는 거꾸로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委員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사람 모아 놓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것이예요.

그런데 시담을 하는 規定이 어떤 規定으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지, 덮어놓고 우리 示談한다, 내려가면 내려 간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다 公開해 놓고 100원인데 얼마주고 할래 이것이 더 낫지. 처음부터 100원인데 95원주고 할래 안 할래 이것이 나은 것이지, 그렇게 내려가려면.

○會計課長 林綵瑾; 委員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示談을 하면 몇 %까지 내려가면 示談해서 落札시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經理官이 써 준 金額에 몇 %까지 내려갔을 때 示談이 되어 가지고 契約이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가 없습니다. 經理官이 쓴 것보다 낮으면 契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李廷義委員님이 하신 말씀이 100萬 원짜리를 하는데 150萬원부터 해서 150萬원, 140萬원, 130萬원, 120萬원, 110萬원, 100萬원할 바에야 처음부터 100萬 원인데 얼마 줄래, 얼마 주고 할래 하는 것이 낫지, 뭐 할려고 슬슬 내려와. 隨意契約인데 처음 바로 해 버리지. 100萬원인데 100萬원에 하지 150萬원 죽죽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 制度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制度를 분명히 밝혀

라 내 얘기는 이것이지요, 자꾸 말로 하지 말고 서류를 보여 달라, 示談은 어떤 때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적힌 서류를 보여 달라 이것이지.

○會計課長 林綵瑾; 무슨 서류 말씀입니까, 契約에 관한 서류 하나 보여 드리고.....

○李亮漢 委員; 契約하는 방법을 어떠한 業務便覽이라든지 公務員이 업무를 어떻게 한다든지 內規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隨意契約에 관련된.....

○李亮漢 委員; 內規라든지 그런 것 없어요?

內規가 있으면 內規 보여 주면 되지.....

○會計課長 林綵瑾; 內規 없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우리 委員이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契約하는데 있어서 차례대로 價格이 내려가서 99.9%에서 맞춘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理解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쉬운 얘기로 李委員 말씀하신 대로 100원 豫定價 정해 왔으면 100원 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200원에서 150원 죽 내려오고 그 다음에 100원까지 가서 99.9 % 맞추었다. 이런 얘기 했을때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전부 99.9%인데 그런 부분을 이룰테면 우리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이견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룰테면 시담이라는 節次가 있어서 차례대로 죽 내려간다, 앞에 隨意契約하면서 그런 장난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豫定價가 얼마다 하는 것을 차라리 내놓고 그 밑으로 해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會計課長 林綵瑾; 그건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 委員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말씀하십시오.

○李廷義 委員; 돈을 다루는 財務局이 계약을 하는 財務局이 생각합니다. 지금 一介 職員의 생각으로 行政을 보는 것입니까? 契約을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우리 서울시 財産이 왔다 갔다 하는데 規定이 없고,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監査받습니까? 여기가 말장난하는 데입니까?

委員長님, 단호한 監査의 意志를 보여 주시고 이런 監査라면 監査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答辯 書類를 提示하시고 提示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問題입니다. 만약에 制度가 없고 規定이 없어서 그냥 했다, 그런데 우연하게 99.9%가 나왔다, 천백만 서울시민이 누가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학교 어린애도안 믿습니다. 만일에 그런 規定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問題입니다. 그런 規定이 없이 계약이 되었다, 이것은 보통 問題가 아닙니다. 더 더욱 놀랄 問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財務局長 答辯하시고 거기에 대한 書類를 提示하든지 해야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나 견해를 얘기할 수 없고, 분명한 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제가 動議한 대로 委員長께서 決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錫珍; 決議 이전에 실질적인 資料를 보고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9%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質問을 다시 드립니다. 契約書에 隨意契約의 내용들이 물론 괄호에 緊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隨意契約의 내용들이 한결같이 99.9 %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래서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가면 그 다음에 李廷義委員님의 意見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李廷義 委員; 隨意契約 관련 規定書類, 아까 會計課長이 答辯한 關聯規定 서류까지 添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알겠습니다.

(「意見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意見 말씀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委員들이 納得을 하고 있지 못하고 隨意契約이라고 했을 때는 다 짜고 하는 것처럼 밖에 認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納得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오늘 財務局은 行政事務監査가 끝나는 날인데 그것을 그냥 자료로 앞으로 제출하라고 한다면 실제로 監査期間이다 지나서야 要式的으로 자료 제출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關係公務員을 시켜서 詳細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받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또 여기는 監査場이지 토론장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公務員들의 자세가 委員하고 討論하겠다는 態度이지 이게 무슨 監査를 받겠다는 자세입니까?

委員長,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분명하게 注意와 警告를 주기를 要請하고, 監査도 앞서서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討論하자는 겁니까? 委員長, 진행 좀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文錫珍; 자료 요청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한 것이고,

따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監査하는 현장에서 보기로 한 것이니까 資料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資料를 檢討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李廷義委員님 다른 見解를 말씀하시면 그러한 견해를 받아서 決議案을 채택하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99.9% 隨意契約에 관련된 契約書類과 여기에 관련된 規定을 함께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얘기해서 가져온 資料를 제가 훑어보는데 5년 이상 경과하면 廢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81年 資料도 있고, 88年 資料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5년 이상 경과된 資料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法規上으로는 5년 이상된 資料를 廢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廢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빠진 서류가 왜 빠졌는지, 廢棄되었으면 廢棄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록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한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줍니까?

○金廣洵 委員; 會計課長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李廷義委員님의 隨意契約에 대한 입장은 과거 관행의 어떤 隨意契約이냐, 아니면 어떤 근거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의委員님이 지금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업자들이 이런 制度면 談話할 수 있다, 그리고 또 行政府에서는 업자들에게 特惠의혹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 자꾸 이런 쪽의 慣行이라고요. 그래서 委員님들이 납득할만한 입장의 根據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관행적인 입장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자체가 理解가 안 가는 거예요.

○會計課長 林綵瑾;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梁委員님 야단치시고 이러시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양심이 있고 자기가 하는 업무의 基準이 있고 公務員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데 99.9%되었다, 뭐 했다 그래서 豫定價格을 알려 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蓋然性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公務員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서로 상호 의사교환이 되어야 될 事項이지, 擔當 公務員이나 經理官이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있다 해서 해결이 될 事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梁委員님이 여기가 討論하는 데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委員님 여러분들이 質疑하신 데 대해서 여기 앉은 執行部에서 答辯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答辯하는 과정에서 委員님들이 이래저래 자꾸 물으시면 우리는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것을 答辯하고 意見提示를 해야 되는 것이지 委員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監査하는 과정에서 委員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行政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討論場이나 하고 야단을 치시면 그럼 저희는 여기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묻는데 答辯 안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梁敬淑 委員; 委員들이 계속적으로 要求를 했던 부분은 書類에 根據한, 統計나 資料에 根據한 答辯을 하라는 것이지 여기가 才致問答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常識을 내보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會計課長 林綵瑾; 제가 常識 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대로 하고 있는 事項을 이야기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렇다면 豫定價格하고 거의 비슷하게 隨意契約이 다 체결되고 있는 이유를 根據 있게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根據는 이것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라는데 뭐 그렇다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묻는 거예요?

○會計課長 林綵瑾;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와 있는 것은 委員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梁敬淑 委員; 根據書類와 資料에 根據해서 答辯하라.....

○委員長 文錫珍; 會計課長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99.9 %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理解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根據資料를 가지고 答辯을 하십시오. 아까처럼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示談을 해서 차례대로 내려온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이를테면 談話を 해가지고 업체별로 나누어서 들어오고, 나누어서 들어온 것도 豫定價에 맞추어서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指摘하고 있는 事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指摘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명을 하시려면 根據資料를 가지고 提示를 해야지 示談으로 해서 가격이 차례대로 내려와서 100에서 딱 맞으면 된다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말이야.

○會計課長 林綵瑾; 그 資料를 가지러 갔습니다. 제가 契約을 擔當하는 公務員 아십니까? 公務員이 짜고 하지 않은 이상 99%가 왜 되느냐 하는데 擔當公務員이 99%를 짜고 하고 예가를 알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십니까?

○委員長 文錫珍; 例가 왜 없습니까? 신문에도 지금까지 보면 豫定價 알려 주어서 구속되는 公務員들이 한 둘이었습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한다 이 말씀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런 事例도 있는데 會計課長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가지 公務員들이 그런 事例가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會計課長 林綵瑾; 그러니까 지금 서류를 가지러 왔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資料를 委員님들께서는 檢討를 해 주시고 다른 質疑事項을 바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鄭水華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鄭水華 委員; 市有地 貸付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5年 10月 貸付豫定 財産目錄을 보면 32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木洞 商業用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木洞 新市街地 아파트가 開發된 지가 10餘年이 넘는데 사실상 중심축 開發이 안 되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못보고, 편리함이 商街 형성이 안 되어서 시내로 나오든지 영등포로 나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여러 가지 구매행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陽川區 水洞 908번지일대와 新亭洞 319번지, 324번지 해가지고 열 군데를 대부분 豫定地로 잡아 놓고 있는데 그 동안 賣却이 작년에도 많이 이루어졌지요? 거의 이루어지고 이것만 안 팔려서 貸付를 할 意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木洞 新市街地 陽川區, 國會議員도 그러고 선거에 나오는 분마다 陽川區 중심축 開發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公約들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開發이 못되고 호텔도 들어서고 백화점도 들어선다 그런 얘기들은 있고 나산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아직 施行을 못보고 있습니다. 市 當局에서 木洞新市街

地 中心軸 開發에 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얼마큼 빨리 開發될 수 있는지 여쭙어 보고 싶고, 그리고 908번지 한 300餘坪씩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新亭洞도 다섯 군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하는데 그동안 차라리 더 노력을 해서 賣却을 해서 실제 소유주로 하여금 본격적인 원천적인 건물을 잘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開發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本委員은 생각이 드는데, 財務局에서는 어떻게 대부결정을 했으며 또 陽川區廳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財産管理課長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貸付할 財産으로 내놓고 있는 財産은 11號線이 지나갈 豫定인 財産입니다. 다시 말해서 地下鐵 11號線 建設에 저촉되는 財産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賣却이 保留되어있는 財産입니다. 따라서 그 財産을 地下鐵 11號線 하게 되면 3기 지하철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땅을 놀려 둔다는 것도 問題가 있고 해서 그 기간 동안만 貸付를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答辯이 되셨습니까?

○鄭水華 委員; 우선 貸付關係, 아까 말씀에도 중심축 開發에 관한 市 當局의 무슨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計劃이 어떻게, 지금 土地를 買入한 분들하고 구체적인 약속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지금 木洞 중심축 商業用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賣却한 것은 거의 80 %가 賣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賣却되지 않는 부분 한 20%정도

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賣却을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賣却을 해 보니까 4필지밖에 賣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아서 賣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賣却했거나 또는 契約해 놓은 80%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지역이 開發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CBS를 중심으로 한 중심축의 土地에 조금 전에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나산건설이라든지 또는 SBS, 그 외에 개인이 매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開發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산건설은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리면 12月 16日에 호텔用地와 백화점 敷地를 買入을 해 갔습니다. 買入을 해 갔는데 그때 契約金만 냈고 아직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는 殘金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매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12月 16日이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가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됐습니다. 지금 貸付關係에서 追加로 어제 質問드렸던 事項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단순히 貸付 財産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낮게 되어있다고 하는 次元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하고 是正을 해야 되는 節次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西大門病院하고 그 다음에 東部病院 거기에 보훈복지공단하고 靈安室을 市有財産으로 貸付를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資料에 보면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 보훈복지공단하고 지속적으로 契約을 하는 이유하고 또 이 가격이 연간 대부 金額이 95年度되어서야 137.04m²에 대해서 1,400萬원 정도인데, m²당으로 따지면 年間 賃貸料가

10萬 3,000원, 10萬원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지. 또 걱정하다고 하면 어떠한 根據에 의해서 걱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을 答辯을 하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먼저 貸付金을 算出하는 基準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貸付金 算出하는 基準은 건물은 財産價格 산정을 鑑定價格으로 해서 그 鑑定價格의 50/1000, 다시 말해서 5%를 賦課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基準으로 해서 하고 있고 土地價格은 公示地價의 5%를 賦課해서 연간 貸付料를 算出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西大門病院과 東部市立病院에 대한 영안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財産에 대해서 대부하는 것은 東部市立病院과 西大門市立病院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 결과만 저희들이 수합을 한 것입니다. 이 病院은 주로 死亡者가 行려환자들이 주로 있고, 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거의 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病院에 입원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收益性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영안실, 일반 우리 病院의 영안실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隨意契約을 했느냐 公開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鎮珍; 어제 이미 이 事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이 두 件을.....

○委員長 文錫珍; 이미 어제 또 한번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드렸던 事項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는 貸付金額이 현실

적으로 낮으니까 그래서 規定을 말씀하실 때 鑑定價의 5%로 한다, 또는 公示地價의 2.5%로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죽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基準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는 앞으로 制度 개선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最低金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일단 그 金額은. 대부를 할 때 鑑定價의 5%라든지 公示地價의 2.5%라든지 이런 것은 最低金額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부를 할 때의 金額은 이러한 부분도 公開경쟁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이에요. 지금 상식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東部病院이나 西大門病院이 黑字病院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병원들이 黑字가 아닙니다. 赤字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 요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해 주고 있는 자체도 보면, 하여튼 서울시든 병원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經營改善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묻는 質問의 焦點은 왜 한국보훈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契約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이 公開競爭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원칙은 公開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確認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언제 확인해서 하지요? 어제 한번 指摘된 事項이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質問하든 안 하든 基本的으로 한번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行政事務監査가 그 자리에서 指摘된 事項에 대해서 다음에 알

아보겠다, 是正하겠다 하고서 알아 보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만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問題가 생기면.....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바로 알아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동시에 다른 것 하나 또 물어 보겠습니다. 30쪽에 보니까 市友會에 賃貸한 것이 있는데 124.2m²를 493萬 9,240원에 했어요. 그러면 m²당 3萬 4,475원밖에 안 됩니다. 민방위교육장 賣店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싸게 했습니까? 적절한 가격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 基準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公開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해당 部署에 저희들이 즉 일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市有地 貸付財産에 대해서는 基準이 없습니까? 公開로 한다든지 隨意契約을 한다든지 무슨 基準이 없어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公開를 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원칙으로 하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公開로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措置합니까? 緊急한 事項이 여기에는 없지요, 이를테면 隨意契約을 해야 될 緊急한 事項, 賣店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賣店이라든지 緊急한 事項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관례적으로 隨意契約을 하는 事例가 많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러니까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로도 계속 관례적으로 해야 됩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全機關에 이미 施設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公開를 하도록 계속 促求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契約期間이 금년 연말로 끝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市金庫의 問題가 이럴테면 전산처리의 問題나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派生되는 問題가 워낙 커서, 또 심지어는 國家 經濟까지 운운 하시면서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公開競爭의 原則이 조그마한 이러한 市有 貸付財産에서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市有貸付財産의 契約자체가 公開競爭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隨意契約으로 되었는지 그 전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전화로도 얼마든지 확인해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隨意契約된 내용들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黃仁明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黃仁明 委員; 資料를 받은 것 중에 委員長 말씀하시는 대로 그 중에서 公開나 競爭入札을 해서 落札해서 貸付한 것이 있는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저희들이 參考로 말씀을 드리면, 裸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土地에 대해서 貸付하는 것을 自制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占有를 한 사람들이 대부자가 緣故權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해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需要者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일부 貸付를 했습니다. 그것은 隨意契約으로 貸付를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貸付를 했고 나머지 施設이 된 建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 부분이 行政財産으로 管理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行政財産이라는 것은 行政을 遂行하는데 필요한 財産입니다. 行政에 必要한 財産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을 貸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行政財産은 관리하는 部署가 책임지고 管理를 하고, 또 貸付를 할 때도 責任지고 貸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지금 目錄을 提出을 해 드렸습시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確認을 해야 될 事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文鎮珍; 지금 黃仁明委員님 質疑하신 內容은. 原則은 어제도 들었어요. 市有貸付財産에 대한 金額을 결정하는 基準은 鑑定價額인지 公示地價인지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룰테면 監査院 監査에서 指摘당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제의 價格과 얼마나 差異가 있는가 때문에 公開競爭하느냐 隨意契約을 하느냐 이런 것을 質問했고, 지금 黃仁明委員님 質疑內容은 市有 貸付財産中에 公開競爭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하는 質疑예요. 1件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래서 이것은 確認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公開競爭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을 있으니까.....

○黃仁明 委員; 黃仁明委員입니다.

우리가 매월 業務報告를 받을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

분입니다. 특히 財務局에서 報告가 나왔던 부분인데 官邊團體 지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公式的으로 支援金 이 직·간접적으로 金額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문제도 제가 많이 따졌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隨意契約해 가지고 새마을協議會나 이런 데 주는 것도 이것도 따지면 官邊團體 間接支援입니다. 그런데 資料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官邊團體를 지원할 의지가 없으면 이런 것부터 公開競爭 입찰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規定이나 根據를 가지고 隨意契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부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원입니다. 市友會는 제가 理解를 합니다. 여기 公務員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도 退職後 몸담고 그러니까 어떤 일환으로 되었다고 제가 일견 理解하는 부분도 있는데 官邊團體가 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 아까 제가 質疑한 것과 마찬가지로 公開競爭入札 해서 대부하는 것 있나 그런 事項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規定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隨意契約을 했는지 그 根據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 資料를 지금 곧 準備를 해 주시고, 다른 質疑를 부탁드립니다.

金勝子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子 委員; 市有財産 無斷占有 現況 및 辨償金 賦課內譯 中에서 상당히 資料가 부실한 건 같아서 몇 가지 例를 뽑아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호 42번 西大門 弘濟洞 199-20에 16.3m²에 문일권 氏가 점유자였는데 賦課日이 94年 7月 6日이고

54萬 6,170원으로 賣却이 되어 있다 하고, 56번에 보면 西大門 弘濟洞 199-20에 163m²에 문일권 동일인이 94年 8月 19日에 441萬 2,520원에 또 賣却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無斷占有者한테 賣却할 때 基準이 公示地價가 적용되는 것인지 어떤 基準 원칙에 의해서 부과되고 賣却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2번 江東區 域內洞 186-4외 2필지 351m² 인풍건설 채상록이라고 되어 있고 140萬 5,520원인데 비고란에 賣却인지 대부전환인지 교환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한 가지씩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문일권 氏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일권 氏에 대한 賦課는 占有期間이 94年 1月 27日부터 7月 5日까지하고 뒷 부분에 8月 18日까지 그 기간 동안에 占有한 것이 錯誤 賦課가 되어서 뒷 부분은 追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勝子 委員; 追徵한 부분인데 이것이 賣却代金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아닙니다. 이것은 辨償金입니다.

○金勝子 委員; 辨償金이에요? 賣却으로 되어 있는데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비고란에 賣却하는 契約日이 8月 19日이기 때문에 18日까지 어떤 辨償金을 賦課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賣却하는 시점까지 辨償金을 전부 다 賦課를 하고 8月 19日 契約을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고란에 賣却이라고 해 놓은 것은 앞에 賦課金額은 辨償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의 비고란에 해 놓은 것은 향후 措置를 賣却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것은 賦課金額을 전부 다 받은 건이 되겠고, 뒤에 滯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滯納된 건입니다. 그 다음에 貸付轉換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정식으로 貸付 契約을 締結해서 이때까지는 無斷占有를 했기 때문에 辯償金을 賦課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정식 契約을 맺어서 貸付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事例들이 비고란에 적혀있습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 주십시오.

○金勝子 委員; 그러면 설명해준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조금 그러면 문일권 氏나 그 밑에 연번호 57번에 있는 육근철 氏한테 그 땅들이 현재 賣却된 상태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현재는 賣却된 상태지요.

○金勝子 委員; 그러면 辨償金 賦課內譯 그 자체보다도 無斷占有 현황 및 辨償金 賦課內譯인데 賣却을 했으면 賣却價 총가액과 평당가액, 그 다음에 같은 西大門 弘濟洞이고 57번은 육근철이라는 사랑인데 91.7m²인데 거기는 거의 비슷한 기간에 되어 있고 한데 굉장히 差額이 많이 나는데 그 基準地價가 어떻게 適用되는지 여부와 賣却이 되었다면 賣却契約書 寫本하고 평당 가액 그것을 전부 소상히 書類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몇 번 몇 번 말입니까?

○金勝子 委員; 56번, 57번이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敬淑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어제 本委員이 瑞草洞 987번지일대 서울市廳 舍 敷地와 西小門 37번지 일대 大法院 大檢察廳 부지 재산 교환에 대해서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施行規則에 의하

면 國有財産과 私有財産을 交換할 때는 豫定 價格 決定資料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公有財産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가격평정조서에는 인근의 賣買實例調書, 매매 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公認鑑定機關의 價格鑑定 調書, 公有財産審議 會議錄 등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條例에 規定이 되어 있으니까 그 資料를 가져오라고 제가 要求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資料가 왔는데 價格評定書에 당연히 붙어야만 하는 매매실례조서나 매매물건의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그리고 가격감정평정 조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붙어 있기는 한데 어떠한 價格을 기준으로 해서 매겼더라는 부분은 전혀 없고 재산가 價格 評정조서해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管財課長이 決裁를 한 내용 이 한 장밖에 資料가 없고, 또 韓國鑑定院에서 鑑定했다는 용지도 별첨과 같이 鑑定하여 回附합니다라는 내용이고 鑑定結課가 資料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붙어야만 하는 賣買實例調書도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交換하는데 있어서 書類 자체가 미비하고 書類 자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確認이 되었어요. 書類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더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울市에서 提出한 資料에 의해서 確認이 된 것입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去來實例價格調書라는 것은 저희들이 公有財産審議委員會를 하면서 鑑定한 價格과 실제로 거래한 價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確認해야 된다는 것은 梁委員님과 同感입니다.

그러나 鑑定評價書を 보시면 價格調査를 위해서 6회 이상 現場을 調査를 했습니다. 또 鑑定表 하단을 보십시오. 보시면

鑑定을 하면서 부지의 상황이라든지 효율성, 가로의 조건, 인근 시세 등 지역 요인에 대해서 평가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賣買實例價格이라는 것은 公有財産審議委員會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한 하나의 資料입니다. 참고로 하기 위한 이 資料는 公有財産審議 資料와 함께 公有財産審議라는 성격은 하나의 諮問機構입니다. 市長에 대한 하나의 諮問機構이기 때문에 이것은 契約書라든지 評價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保管을 하고 있습니다만 公有財産審議資料는 5年 동안 保管을 하고 廢棄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요. 그래서 이것이 88年度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廢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賣買實例價格調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벌써 88년에 이루어졌던 事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賣買實例調書 이것이 作成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현재는 確認할 방법이 없고, 그 당시에 公有財産審議 資料는 이미 과기가 되었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梁敬淑 委員; 財産價格評定書라고 되어 있는 書類가 서울市에 保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았어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별도로 또 保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또 다릅니다. 公有財産審議 書類하고 그것하고는 또 달라요.

○梁敬淑 委員; 財産價格評定書가 붙어 있는데 평정조서에 價格評定調書와 財産價格評定書가 붙어 있는데 뒤에 붙어야 될 資料가 없단 말이에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무슨 資料가 없습니까?

○梁敬淑 委員; 實例調書라든지 圖面이라든지 審議會議錄이 없는데 왜 없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契約 만료일이 지나지 않

왔어요. 契約滿了日은 분명하게 올해말입니다. 95年 12月31日 예요. 契約이 아직도 持續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資料나 書類나 이런 것을 다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기본적인 資料라는 것은 交換契約을 한 資料라든지 鑑定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資料는 전부 다 가지고 있지요.

○梁敬淑 委員; 그리고 廢棄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去來實例價格이라는 것은 公有財産審議委員會에 필요한 資料입니다. 그래서 公有財産審議委員會라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諮問입니다. 諮問을 위한 資料이기 때문에 會議錄이라든지 會議書類는 5年되면 廢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實例價格이 작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현재 確認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廢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梁敬淑 委員; 교환을 할 때 분명하게 條例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契約期間도 아직 滿了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廢棄하고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強調해도 되는 것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아니, 그게 原 書類는 다 있어요.

○梁敬淑 委員; 契約期間이 完全하게 끝나버렸으면 納得을 조금 할 수도 있어요. 契約이 아직도 満了일이 안 되었었는데 많은 資料를 없애 버렸다는 것이 納得이 되냐고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우리가 文書管理 規定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梁敬淑 委員; 그리고 廢棄處分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 다른 資料는 대부분 타이프를 쳐서 폐기결

재를 받은 書類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으로 어제 만든 흔적이 상당히 농후한 것 같은 疑惑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죽 써가지고 그냥 지금 가져 왔더라고요.

우선 이러한 중요한 關聯書類를 契約期間도 滿了가 안 되었는데 없애버렸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課長은 그러면 당연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契約期間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關聯書類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법이 5年 지나면 廢棄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될 의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契約期間이 만료가 안 되었으면 중요한 書類를 끝까지 법이 어찌 되었든지간에 保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잘 했다 못 했다 그런 次元을 떠나서 賣買實例價格이라는 것은 公有財産審議會에 관련되는 書類입니다. 다시 말해서 公有財産審議會라는 것은.....

○梁敬淑 委員; 아니, 알아요. 똑같은 얘기 答辯하시지 마시고, 계속 똑같은 答辯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公有財産審議委員會에 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資料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隣近의 賣買實例調書を 왜 제가 계속 提起를 하나 하면 실제 그때 당시에 坪當 價格이 1,000 萬원에서 2,000 萬원이라고 證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누가 그렇게 證言합니까?

○梁敬淑 委員; 不動產 했던 전화번호까지 알려 드릴까요? 不動產을 運營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裁判을 訴訟 中인 것은 아시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자꾸 재판, 재판 말씀을 하시는데 裁判이라는 것은 현재 還買權訴訟입니다. 그 땅 가격에 대한 訴

訟이 아닙니다. 그리고.....

○梁敬淑 委員; 還買權 訴訟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의 價格은 그랬었다라는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던 말이예요.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이 公信力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鑑定院이라는 것은 國家가 設立한 우리나라 제일의 鑑定機關입니다. 鑑定機關을 못 믿고 복덕방.....

○梁敬淑 委員; 이것 보세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鑑定할 때 누가 鑑定價格을 똑같이 일괄 택지로 평가하라라는 그런 鑑定이 客觀性이 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우리 서울市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梁敬淑 委員; 公信力이 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있지요.

○梁敬淑 委員; 어떻게 있습니까? 鑑定할 때 여러 가지 垜地나 林野나 田畝이나 公園이나 道路를.....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잠깐만요. 黃仁明委員님 議事進行發言해 주십시오.

○黃仁明 委員; 지금 行政事務監査하는 것입니다. 우리 財産管理課長, 委員이 質問하는데 물론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박하는 이런 태도로 答辯하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委員도 충분히 調査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반박하는 그런 태도는 受益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좋습니다.

그런데 梁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土地中에 거기에는 空地도 있고 林野도 있고 道路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公園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가 일괄 택지로 해서 評價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道路나 公園, 林野로 해서 評價하는 것이 나으냐, 지금 梁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林野나 公園이나 道路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의 업무를 하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論理가 있을 수 있습니까?

○梁敬淑 委員; 나은지 안 나은지는 客觀的으로 評價를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公信力의 문제를 아까 提起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입니다. 공신력이 어느 鑑定을 의뢰할 때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충분한 調査를 해서 鑑定을 해 달라, 이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價格을 올려서 서울시를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간에 規定을 해 주고 있다고요, 미리 要請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청한 내용이 鑑定表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公信力이 있냐 이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核心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거기가 현재 여러 가지가 地目이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鑑定을 요구할 때 예를 들면 市議會가 있는 땅을 한번 鑑定해 주시오라고 할 때 상가를 基準해서 鑑定을 해 주시오, 또 아니면 道路를 基準으로 해서 鑑定해 주시오, 이렇게 要請을 합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합니다.

○梁敬淑 委員; 要請을 하면 그것이 鑑定에 공신력이 있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種別이 다른 용도를 하나의 용도로 지정해 가지고하는 부분이 공신력이 있다고 강변을 할 수가 있어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거기는 地目이 道路고 林野고 公園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都市計劃上으로는 그 당시에 公用의 廳舍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택지로 해서 평가가 되어야지 왜 그것이 公園, 道路로 평가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委員長 文錫珍; 똑같은 質疑와 答辯이 계속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정리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더 좋게 하려면 대지로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商業用地로 하지 그랬습니까? 이를테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質疑를 서로 왜 垆地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마시고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서로 論旨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李廷義 委員; 지금 제가 補充說明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李廷義 委員; 지금 梁敬淑委員이 어제부터 그것 가지고 계속 質疑 應答을 하고 있는데 本委員이 나타나서 얘기한다는 것이 죄스럽습니다만 조성되기 전에 道路나 公園이나 있을 때 당시에 鑑定評價를 조성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 택지로 보고 하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 正當性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本委員이나 梁敬淑委員이 얘기하는 根本 趣旨

는 분명하게 그때 당시에 鑑定을 했던 시점의 時價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 그것이 大統領에 의해서 그렇게 했든 어쨌든 간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던 그런 與件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현실과 너무 부합되어서 서울시가 너무 不利益을 당하고 있다, 이런데 대한 共感帶를 서울시 公務員과 서울시議會가 똑같이 가지고 對話를 해야 되고 問題接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분적인 하나 하나를 가지고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本委員이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두번째 財務局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분명하게 書類가 5年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5年 가지고 있는 書類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또 그 書類가 설사 5年이라 하더라도 지금 契約이 만료가 되어서 引受引繼가 되지 않았는데 廢棄處分했다,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解明과 料明을 해야 될 것이라고 本委員이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5년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아직 완전히 終結되지 않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根據를 가지고 精算을 해 주어야 될 書類인데 거기에 대한 書類가 부분적으로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根據 規定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말로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規定에 의한 書類가 있고 없고를 분명히 구분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고, 지금 梁敬淑委員이 그렇게 따지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時價 자체가 宅地價格이 아니라 商街價格보다도, 또 宅地價格이라 하더라도 택지가격 자체가 그때 당시 鑑定價格이 거의 네 배, 다섯 배 차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왜 택지로 지정했느냐, 택지보다 더한 것으로 해야지, 書類 자체도 없

다, 또 택지로 指定했기 때문에 그렇게만이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論理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상 원칙을 따져 보면 道路나 公園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建物이 들어섰을 때를 기준으로 한 택지로 보고 精算을 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妥當性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梁委員이 얘기하는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 주어야 됩니다. 그 본질을 외도하고 말고 하나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監査가 政策監査도 있고 근본적인 서류의 잘못을 지적하는 監査가 있는데 이것은 政策的인 問題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公務員의 대답의 자세가 분명하게 거기에 접근하는 대답이 나와야 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實務者가 아니라 局長께서 答辯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書類가 있고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原因 料明을 文書로 거기에 대한 것을 規定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렇게 접근해서 결론을 짓고 終結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本委員이 補充質疑했습니다.

○財務理長 權五虎; 제가 答辯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公務員들이 行政을 함에 있어서는 規定과 節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推定하건대 상당히 損害를 본 것 같더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鑑定院이 鑑定한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했다라는 問題는 刑事的으로도 問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行政的으로만 論議할 問題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市에서 제시한 意見과 議會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隔差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議會監査라는 것이 監査院 監査를 해도 이쪽 주장하고 監査院 주장하고 팽팽히 맞섭니다. 監査院 주장이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도 監査院이 그것을 적발해서 懲戒 要求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資料가 없는데 우리는 公文書 規定에 의해서 없다고 答辯을 했고 委員님들은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없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議會의 요구대로 우리가 首肯을 해다오 하는 요구는 저는 타당치를 못하고, 또 그것은 首肯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提示하는 意見이 타당치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議會가 指摘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是正을 하고, 그것이 是正이 가능한 것이면 우리가 是正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장이 정당하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論議한 部分이 이쪽이 수공을 하든 그쪽이 포기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를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9年度에 契約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가격이 이제와서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書類에 의해서 우리 鑑定機關에 의해서 鑑定을 했기 때문에 우리 公務員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答辯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同意를 하라고 그러면. 同意되었으면 그 당시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지금부터 밝혀야 되는데 書類에서 그런 根據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書類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으면 制度의 補完을 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書類를 없앤 것이 우리가 잘못 되었으면 委員님

들이 보는 입장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補完하든지 措置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課長님들께서 答辯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書類에 의해서 정당성을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委員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시고 계시니까 우리 資料를 가지고 判斷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지금 局長께서 答辯을 하셨습니다. 本委員이 議事進行發言을 하겠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린다는 문제는 裁判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事項에 대해서는 우리가 疑惑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書類上으로 확실한 答辯을 듣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問題를 指摘을 해서 根據로 해서 措置를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效率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委員長한테 議事進行發言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委員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梁敬淑委員님, 질의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이와 관련해서 어제 契約書에 임대료나 貸付料를 주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關係公務員은 答辯을 했는데, 契約書에는 新築을 하는 工事의 便宜를 제공하게 되어 있지 賃貸料나 貸付料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지금 7,300坪하고 2萬 9,000坪을 맞교환하면서도 50億원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속에서 契約書라든지 關聯 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檢討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주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주는, 이것은 최소

한입니다. 그러한 方向을 탐색하는 것이 서울市民들의 自尊心도 살리는 것이고 서울시 執行部の 自尊心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公務員들이 계속 5年 書類廢棄한 문제라든지 전혀 轉向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나 서울市民들을 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指摘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常識이나 또는 토론의 자세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 바라고 마치고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執行部쪽에서는 편의를 봐 준다는 것이 집을 짓도록 許容을 해 주었기 때문에 貸付料는 免除를 했다고 判斷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들께서 그런 이의를 提起해 주셨기 때문에 指摘을 해 주시면 顧問辯護士한테 諮問을 몇 군데 받겠습니다. 받아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까지 즉 質疑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에 압축해서 넣겠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감사를 하는 忠情은 아까도 표현된 대로 우리가 과연 지금 보면 이쪽하고 瑞草洞 쪽하고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돈까지 주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근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산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辯護士하고 協議를 해서 방법을 講究해 주시기를 財務局長께서 지금 答辯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의委員님 隨意契約 資料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委員長 文錫珍; 黃仁明委員님 먼저 質疑하시고 나서.....

○黃仁明 委員; 資料要請 좀 하겠습니다.

監査資料 18項目인데 94年 이후 현재 서울市內 公有財産 無斷占有 現況 및 不法使用에 따른 辨償金賦課 實績, 어제 李廷義委員이 다시 要求를 해서 오늘 資料를 받았는데 이 書類 保存期間이 몇 年입니까? 5年입니까? 목록이오.

94年 이후 현재 서울市內 公有財産 無斷占有 現況 및 不法使用에 따른 辨償金 賦課 내용인데 이 書類 保管 期間이 얼마예요? 이것도 5年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이것은 書類 保管을 전부 賦課한 部署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書類 잘 받았는데요, 그러면 91年 1月 1日부터 금년 10月末까지 이 目錄만 내 주시고요, 특별히 留意할 事項은 備考欄을 명확히 해 주세요. 비고란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비고란을 명확히 해서 賣却이면 賣却 이런 잘못된 것을 놔두지 말고 잊지 말고 정확히 다 記載해 주세요. 5年 목록 많지 않을테니까. 1年分이 100가지밖에 안 되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빼고.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賣却한 부분은 賣却한.....

○黃仁明 委員; 네, 처리되어 있는 현 상태까지 정확히 비고란을 적어서, 이것은 94年이후 것이니까 이것 빼고 91년부터 직전까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子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子 委員; 金勝子委員입니다.

資料 90쪽에 보면 外國人 土地取得許可目錄內譯이 있는데 외국인 土地取得許可 이후에 연도별 增加率과 죽 보면 개인 이름도 있고 법인명도 있는데 앞으로 開放化 이후에 여러가지 세계적인 우리 나라의 開放化 모든 것을 감안할 적에 國籍別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동양인들이 많고 法人體 이름이 있는데 國籍을 一目錄然하게 정리해서 提出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알겠습니다. 현재 먼저 資料를 요구하신 것은 年度別로 저희가 許可를 내준 것을 資料를 提出해 드린 것이고,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도별 區分없이 현재 所有하고 있는 상태대로 현재 시점으로 國籍別로 區分해서 總計를 내 달라는 말씀이지요?

○金勝子 委員; 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알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이것 質疑만 하고 끝나고 나서 答辯 든죠.

○委員長 文錫珍; 네, 그렇게 하십시오.

○李廷義 委員; 市有財産 無斷占有 現況 및 辦償金賦課 內譯에 대해서 조금 質問하겠으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번, 22번 등을 보면 賦課期間이 있습니다. 賦課期間이 예를 들어서 21번 문승환 같은 경우는 89年 3月 3日부터 94年 3月2日까지 32萬 7,000원을 94年 3月 2日 賦課를 했습니다. 그런데 賦課를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내가 볼 때는 再開發地域內 占有라고 하면 계속 占有일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94年 3月2日까지만 賦課를 하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지.....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죄송합니다만 몇 번, 몇 번.

○李廷義 委員; 21번, 22번, 내가 예를 들었는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제 措置內容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無斷占有를 措置를 했느냐, 또 賦課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점유를 못하게 완전히 해서 回收를 했느냐 제가 그것까지 물어 보았는데 지금 附課額하고 賦課期間만 明示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1번과 22번이 面積이 58하고 74면 거의 비슷한데, 賦課期間도 거의 같습니다. 89年 3月부터 94年 3月이고, 번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金額은 거의 열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인을 確認을 해서 根據를 저한테 提示를 해 주고, 94年 3月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無斷占有를 原狀復歸했느냐 아니면 지금도 占有하고 있느냐, 그리고 賦課만 했지 징수를 했는지 그것도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공란으로 된 것은 징수를 했습니다.

○李廷義 委員;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事項들을 보면 賦課期間이 94년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없거든요. 이것들이 현재 回收가 완전히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賦課를 안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答辯을 書面으로 停會時間 이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알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文錫珍; 네.

○梁敬淑 委員; 서울시는 1973年度에 永東2地區 및 永東 追加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一環으로 江南區 道谷洞地區를 73年 3月 13日 條例 第753號로 制定을 하고 江南 地域에 약 446萬坪을 범위로 하였습니다. 이 條例의 第16條 替資

地의 策定 및 管理處分 條項을 보면 事業費로 充當될 替費地는 시가지 형성의 촉진과 公共施設物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策定할 수 있으며 市長은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따로 規定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93年度, 94年度 작년, 재작년 2年間 道谷洞 467번지에 17筆地를 公賣와 隨意契約으로 賣却하였는데 총 3萬 796坪에 7,577億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本委員한테 제출한 替費地 賣却 목록에 나와있는 부분을 本委員이 道谷洞 467번지 일대만 따로 뽑아본 것입니다. 특히 삼성에는 2萬 1,942坪을 5,914億원에 落札, 賣却하였고 삼성은 이곳에 100층 이상의 삼성그룹 복합 社屋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江南에 남은 마지막 대형 부지라고 소문이 났던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그야말로 성황리에 公賣를 마쳤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道谷地區의 最低價는 467-11번지 坪當 1,231萬원에 拉성 건설평 394坪을 48억 5,000萬원에 팔았고, 最高價格은 坪當 3,058萬원에 467 - 30번지 2,778평을 850億원에 삼성생명 보험에 賣却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1973年 土地區劃整理事業을 시작해서 1980년경에 거의 사업을 마무리한 道谷洞 467번지에서 서울시 93年, 94年 2年 동안만 해도 7,577億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本委員이 判斷하기에는 겉으로 보기에 서울시가 당연히 팔아야 될 替費地를 賣却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收入을 많이 올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겉으로 남고 속으로 굶는다고 서울시 財政 疲弊의 한 斷面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에 60年代부터 지금까지 本委員에게 제출한 資料에 따르면 土地區劃整理事業과 再開發事業, 不良住宅

改良事業 등등으로 시유지와 替費地 약 3만 필지 540萬 坪을 賣却하였다고 提出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市有地와, 물론 替費地를 포함한 것이지만 市有地를 많이 팔았는지, 또 왜 이렇게 30餘年 동안 50萬坪 이상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는 市有地, 替費地를 91년부터 95년까지 680필지 13萬坪, 1兆2,760億 원어치나 賣却을 했습니다. 5년도 안되었는데 1兆 원 이상의 市有地, 替費地를 판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계속 땅을 팔아먹고 한편으로는 地價의 계속적인 上昇으로 수월하게 歲入을 充當하였다라는 그러한 疑惑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自業自得이라고 볼 수도 있는 비탄력적인 不動產 관계의 시세의 세입구조로 되어 있는 서울시 財政이 커다란 危機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땅이 별로 없고 수차례의 不動產 投機 붐으로 형성된 거품 不動產 가격조차 지금에 와서는 賣買實績이 아주 저조해서 不動產 景氣沈滯로 인해서 그 동안 왜곡된 財政構造의 代價를 톡톡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歲入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市稅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市民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그 동안의 잘못된 慣行, 많은 땅을 팔아먹는, 땅을 팔아서 收入을 올리는 그 결과에 의해서 市民들의 負擔으로 앞으로는 다 껴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區劃整理 事業費로 충당될 替費地를 사업이 끝나고도 10여 년 이상 묵혀 두었다가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條例에서 替費地를 처분하기 위해서 따로 規定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市長은 替費地를 팔기 위해서 어떠한 規定을 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다면 무슨 根據와 基準으로 替費地를 파는지 그 基準과 過程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年度 財産賣却 推進現況이라고 서울시에서 本委員한테 提出한 資料에 根據하면 都市開發費 154億원하고 區劃整理費 137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年度에 賣却을 한 실적이. 그리고 95年度 이전에도 土地開發費로 4,900億원이 都市開發特別會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賣却代금이 特別會計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落札할 時에 公賣에 참여한 사업주나 개인을 밝혀 주시고, 그 때 당시에 각 개인이나 事業主들이 入札價格을 써 냈던 부분을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땅은 전부 다 公賣에 의해서 落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軍人共濟會가 94年 4月 30日 道谷洞 467번지 일대의 땅을 隨意契約으로 契約을 해서 900坪 평당가격 1,886萬원, 落札價 318億원으로 落札을 봤는데 왜 軍人公제 회하고만 隨意契約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公共團體로서 무엇을 하려고 落札을 받으려고 했었는지 알고 계신 대로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라성건설과 나인건설의 落札이 平均 公賣價格에 못 미치는 低價로 落札되었습니다. 替費地 매각목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당시 公賣에 참여한 사업주와 개인을 밝혀 주시고, 入札價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年 1年 동안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약 7,000億원 가량을 賣却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94年度에만 이렇게 많은 땅을 賣却했는지 분명한 答辯

을 바랍니다. 또 95年度 歲入, 歲出 구조에 7,000億원 가량의 땅을 集中的으로 賣却을 해서 어떠한 影響을 미쳤다고 평가를 하는지 解明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市가 삼성에 90年度 이후에도 특히 本委員이 알기에는 91年, 92年度에도 替費地 賣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替費地 賣却目錄에는 93年度, 94年度분만 提出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事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0年度 이후에 92年度까지 90年, 91年, 92年度 替費地 賣却目錄을 資料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에 賣却한 번지와 평수, 평당가격, 落札價格을 밝혀 주시고. 94年度 4月 4日 467 - 29번지와 30번지를 서울市는 分割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2年度 10월에도 467-6번지에서 27번까지 계속 분할을 하였습니다. 土地臺帳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土地臺帳을 가서 다 떼어 봤습니다. 그 분할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判斷하기에는 분할을 굳이 이렇게 서울市가 나서서 여러번에 걸쳐서 했던 것이 삼성에게 땅을 팔고 한편으로는 特惠를 주기 위한 意圖가 아닌가라는 疑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解明을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쉬었다가 계속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質疑는 일괄적으로 죽 받고 停會時間 동안에 정리를 해주셔서 續開한 다음에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7分 監查中止)

(17時 51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鄭水華; 續開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停會 前에 委員들의 質問에 대해서 財務局長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李廷義委員께서 市有財産 無斷占有에 대해서 繼續使用 與否와 그 이후의 賦課 여부에 대해서 아까 했는데 준비가 되었으면 그것 먼저 해 주시고요.

○財務局長 權五虎; 資料로 아까 말씀이 계셔서 書面으로 저희들이 提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지금 준비 안 됐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準備가 안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그러면 梁敬淑委員 質問한 것에 대해서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梁敬淑委員님 質問한 것에 대해서 課長이 答辯하도록 諒解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鄭水華; 네, 答辯하십시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財産管理課長이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숙委員님께서 많은 市有地와 宅地를 賣却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質問을 하셨습니다.

서울市가 區劃整理事業을 한 것은 1936년부터 91년까지 39個 지구 550萬坪에 대해서 區劃整理事業을 했습니다. 그 중에 95%를 賣却을 했는데 522萬坪을 賣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未賣却 替費地는 30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70年代와 80年代 초반까지 區劃整理事業, 宅地開發事業을 많이 서울市가 했습니다. 宅地開發事業이나 區劃整理事業을 한 것은 우리 서울市가 財政을 충당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市民, 또 필요로 하는 企業體에 土地를 供給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地價上昇을 抑制한다든지 이러한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그런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0年代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土地를 공급하는 측면은 거의 喪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이 거의 完了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土地를 賣却을 해 왔습니다. 80年代 중반까지는 집중적으로 土地를 賣却을 해서 土地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市 財政도 充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開發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土地를 공급하는 측면은 거의 상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0年代 들어온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土地를 備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서 이번 市長님께서도 앞으로는 土地를 賣却하는 것을 최대한 抑制하도록 指示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管理計劃을 별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왜 팔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質問을 하셨습니다. 먼저 替費地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書費地의 성격은 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해서 그 사업 및 公共施設의 費用에 充당하도록 성격을 規定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資料를 해서 그 사업의 비용에 充당하도록 성격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賣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區劃整理事業費로 充당될 替費地를 事業이 끝나고도 10年 이상 묵혀 두었다가 이를 파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곡동 地域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道谷洞 替費地는 換地確定이 그 당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賣却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93년부터 이것을 환지確定을 해서 賣却이 시작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賣却을 완료했습니다. 또 93년부터 賣却을 하면서 93년에 다 賣却이 되지 않은 이유는 매입자가 없어서 매각을 하지 못하고 94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替賣地를 처분하는 規定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서울特別市替費地處分規程을 두고 있습니다.

賣却代金이 都市開發特別會計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나고 말씀을 하셨는데 替費地는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都市開發法과 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해서 이것은 特別會計로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낙찰할 時 公賣에 참여한 사업주나 개인을 밝히고 入札價格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公賣에 참여한 사업주, 개인은 書類로 提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公賣에 참여해서 落札된 價格은 對象 土地가 1萬 5,635坪입니다. 豫定價格이 2,859億원입니다만 落札價格이 4,430億원. 落札比率은 거의 150%정도 높게 落札되어서 현재 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軍人共濟會에 平均 公賣價의 가격으로 隨意契約을 한 데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軍人共濟會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해서 설립된 政府投資機關입니다. 그래서 買入 目的은 軍人共濟會 會館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隨意契約할 때는 隨意契約 金額, 豫定價格을 公開를 하고 나서 그 價格에 우리는 契約을 하도록 規定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건설, 라성건설의 落札價가 平均 公賣價에 못 미치는 地價로 落札

되었는데 당시 公賣에 참여한 사업주와 개인을 밝히고 入札價格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價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書面으로 提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年 1年 동안 집중적으로 약 7,000億원가량의 賣却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3年度에는 저희 서울市가 財政事情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시기에 저희들이 양키본드도 얻어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메꾸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財政事情의 어려움으로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賣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坪數로 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가 應札을 해서 豫定價格보다도 상당한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應札을 해서 저희 財政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道谷洞 替費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분할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換地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換地확정에 따른 분할이 되겠습니다. 番地라든지 坪數, 落札價에 대해서는 追後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質問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렸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제가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네, 補充質問 말씀하십시오.

○李廷義 委員; 대체적으로 替費地 換地確定이 된 시점에서 팔았다고 한 데 대해서 同感을 하고 이해가 갑니다. 替費地는 특수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賣却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해못한 점이 있는데요, 분할이 換地가 確定이 되면 換地가 된 그 자체로 이미 필지가 다 끝나는데 분할을 또 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든지 書類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

요. 분할이라는 것은 일반 택지를 목적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인데 換地가 確定이 되면 이미 환지할 때 목적대로 필지가 區分이 되어서 確定이 되어 가지고 번지가 나오는데 또 다시 환지計劃에 의한 분할이라는 얘기는 納得이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替費地에 대해서 간단히 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替賣地는 住宅局 都市開發課가 모든 것을 責任을 지고 管理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課는 都市開發課에서 賣却을 依賴한 事項에 대해서 賣却만 집행을 합니다.

○李廷義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분할 自體를 換地가 確定된 이후에 都市開發課에서 해서 賣却 依賴를 한 것입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都市開發課에서 분할을 해서 賣却依賴를 해서 우리가 賣却을 한 것입니다.

○李廷義 委員; 분할을 해서 賣却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答辯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지 賣却을 위해서 財務局이 분할을 해서 賣却했다고 하면 答辯이 가능하겠으나 지금 答辯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梁敬淑委員이 물어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都市開發課에 관련된 書類를 確認을 해 주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것은 答辯 資料를 李委員님께 제출하도록 都市開發課에 通報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答辯에서 제가 잘못 答辯된 부분을 한 가지 指摘하자면 서울市에서 提出한 資料를 제가 죽 道谷洞 敷地

에 대해서만 標本抽出을 해서 해본 결과 2萬 1,942평을 5,914億원어치를 삼성에 팔았습니다. 資料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部分을 다시 다 더해 보시기 바라고, 그것이 좀 틀렸고요.

앞으로 서울市長이 더 이상 팔 땅도 별로 없지만 財政 確保를 위해서 土地 賣却을 되도록이면 억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3年度에 財政이 조금 어려우니까 94年度에 와서는 작년 같은 꼴 안 당하려면 땅을 많이 팔아야지 그래서 7,000億원어치나 팔았는데 財政이 어렵다고 그래서 保有하고 있던 市有地나 替費地를 집중적으로 파는 부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過程을 조금 몰라서 그러는데 換地확정은 어떤 過程을 통해서 정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換地確定에 대해서는 저희들 業務가 아니기 때문에 都市開發課로 하여금 그 過程을 書面으로 提出하도록 通報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오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분할한 부분이라든지.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월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리고 서면으로 質疑書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質問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알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리고 隨意契約을 특별히 軍人共濟會하고만 했는데 軍人共濟會에서 隨意契約을 하자고 먼저 要請했습니

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그렇습니다. 軍人共濟會의 성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軍人共濟會라는 것은 軍人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福祉를 위해서 생긴 法人 政府投資機關입니다. 그래서 國防部의 業務를 하나의 代行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事業은 집이 없는 軍人들의 住宅을 建設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隨意契約을 할 수 있도록 전부 法的으로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梁委員님, 質疑 다 끝났습니까?

○梁敬淑 委員; 네.

○委員長代理 鄭水華; 다른 委員님 質疑하시지요.

○李廷義 委員; 아까 市有財産 無斷占有에 대한 것 答辯 좀 안 됩니까? 無斷占有 期間이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도 賦課期間이 89년부터 94年 2月 15日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의 措置事項이 전혀 없거든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이번에 제출한 것은 94年, 95年度분을 제출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또 95年度분이 있고, 비고란에 賣却이라든지 繼賣 貸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賣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해로 안 넘어가고. 또 貸付契約을 체결했다는 것은 貸付契約으로 넘어 갑니다. 이것은 無斷占有로 해서 辨償을 賦課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고란에 했기 때문에 95년까지는 지금 資料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廷義 委員; 아니, 書類를 보고 얘기하세요. 21번, 22번 아까 물어 보았는데 그것이 93年 3月 9日까지거든요. 그 이후의 措置事項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賣却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원인을 確認해 가지고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그 다음에 면적이 58하고 74인데 金額은 열배 差異나거든요, 9배정도. 그것은 왜 差異났다고 생각하십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몇 번?

○李廷義 委員; 21번, 22번, 번지가 똑같습니다. 금호1가 1183번지 똑같고, 地目도 같은 垡地이고, 賦課期間도 거의 같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調査해 가지고 서면으로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黃仁明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黃仁明 委員; 지금 李廷義委員 말씀하신 부분 빠지지 말고 연속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備考欄을 정확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알겠습니다.

○黃仁明 委員; 그리고 잘 몰라서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占有를 하든지 無斷占有를 하게 되면 20年인가요, 얼마 이상 있으면 隨意契約을 합니까? 그런 規定이 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지금 緣故權 주장은 현재 81年度 4月 30日이전에 占有한 既存無許可로 된 부분은 緣故權을 認定을 해 줍니다. 따라서 隨意 賣却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占有한 無斷占有者나 또는 當付한 사람에 대해서는 緣故權을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黃仁明 委員; 그러면 既得權 같은 것을 일체 인정을 안 합

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안합니다.

○黃仁明 委員; 안합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黃仁明 委員; 그 이후에 施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의없이 했지요?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무슨 말씀인가요?

○黃仁明 委員; 무슨 말씀인가 하면 81年度 이전에 占有했던 것은 緣故權을 認定받아서 隨意契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집행한 일이 서울시에서 없느냐 이것을 여쭙어 보았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없습니다.

○黃仁明 委員; 없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네.

○黃仁明 委員; 네. 이상입니다.

○金信浩 委員; 80年을 기준으로 해서 無斷占有者에게 隨意賣却을 했다고 그러는데 80年을 기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無斷占有者에게 占有取得 時效가 認定되는 期間이 20年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80年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이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特別法에 의해서 저희들이 80年代에 陽性化 措置를 해 주었습니다, 81年 4月 30日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法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補充說明을 드리면 開發年代에 서울시内に 상당한 無許可建物이 많이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不法的인 그런 행위가 되고 있어서 政府가 特別法

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陽性化를 해 주었습니다. 市有地를 占有하고 있는 것도 本人垡地로 認定을 해 가지고 登錄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건물은 정당한 것인데 대지가 市有地를 占有하고 있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指置가 뒤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로 지은 것, 혹은 그 사람들이 過去에 지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適用을 안 받은 부분은 解決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그 法律에 의한 시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占有했던 市有地는 전부 認定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信浩 委員; 그때 당시 80年度에.....

○財務局長 權五虎; 81年 4月 30日 이전입니다.

○金信浩 委員; 81年 해서 80年 이전 것을.....

○財務局長 權五虎; 81年 4月 30日 이전 것은 전부 陽性化 措置를 해 주었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認定을 해 주는 것도 그 이전이지요, 4月 30日 이전입니다. 80年이 아니고 그 이전. 81年 4月 30日 이전에 占有하고 있는 부분들은.....

○金信浩 委員; 그전 것만 認定하고 그 이후 것은 認定을 안 해 주고.....

○黃仁明 委員; 다시 여쭙어 보겠습니다. 資料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81年度 基準했다고 그러는데 81年度에 이미 占有하고 있던 부분은 그 이후에 賣却한 것 있지요? 그것도 認定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81年度까지 占有했던 부분은 그 이후에 우리가 賣却한 것은 隨意契約으로 賣却하는 것입니다.

○黃公明 委員; 賣却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黃仁明 委員; 된 것이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黃仁明 委員; 그런 부분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까?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아직 남아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네. 알겠습니다.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조금 전에 關聯法은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해서 저희들이 緣故權을 認定해 주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것에 대해서 補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市有地에 拂下를 안 받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 산단 말입니다. 건물짓는데 登記가 안 나지 않습니까? 無許可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네.

○李亮漢 委員; 그런데 區廳에서는 家屋臺帳에 올려져 있어요. 家屋臺帳에 올려져서 財産稅는 현재 낸다고. 市有地를 拂下를 아직 못 받으면 땅이 市有地이기 때문에 登記가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땅이 아니니까, 건물도 無許可 建物이라서 현재 登記가 안 되는 것이고, 家屋臺帳에 올려져서 稅金은 내고, 이런 것은 拂下가 가능한 것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家屋臺帳에는 아마 안 올라가 있고 稅金臺帳에는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課稅臺帳에는 올라가 있고 家屋臺帳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것은 拂下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81年 이전 것이라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다 됩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81年 4月 30日 이전 것 같으면 전부 다 陽性化 措置가 되었을 것입니다.

- 李亮漢 委員; 拂下를 안해 준 데도 있어요.
 - 財務局長 權五虎; 本人이 申請을 안 했거나.....
 - 財産管理課長 權赫模; 無許可建物 確認願이 발급되면 해줍니다.
 - 財務局長 權五虎; 그 당시에 陽性化를 해줄 때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道路計劃線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안해주고, 또 用途가 行政用途로 되어 있어서 拂下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안해 준 것도 있고.....
 - 李亮漢 委員; 行政用途上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鄭水華; 더 質疑하실 委員님.
 - 李廷義 委員; 本委員이 아까 工事契約 現況, 隨意契約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해당 발주부서에서 隨意契約 사유를 명기해서 隨意契約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提起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事項일 경우에 隨意契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隨意契約의 목적이 어떠한 규정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됐다.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을 指摘할 수뿐이 없고 그 다음에 隨意契約을 하는 내용이 아까 答辯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資料로 隨意契約할 수 있는 관련 契約 內容을 가져오셨습니다. 가져 왔는데 보면 견적에 의한 價格決定 해서 隨意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 擔當 公務員은 見積書를 契約 相對者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見積 內容이 豫定價格의 범위에 들지 아니할 때는 見積書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見積價格 안에 딱 들어 와서 했다, 그런데 見積價格 안에 딱 들어왔

다. 見積이 예를 들어서 10億짜리면 1億씩 내려가 가지고 見積을 계속 받았다, 그러면 99.9%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豫定價格에 들지 않았으니까 見積을 써 냈다, 그거면 99.9%라는 것은, 물론 10個 중에 한두 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99.99%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요행스럽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千篇一律적으로 똑같이 99.9%로 했다 할 때 과연 그것이 擔當公務員으로서 할 수가 있느냐, 제32조를 보면 隨意契約을 統結하고자 할 때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價格을 提示한 者를 契約對象者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 가장 유리한 價格이 무엇입니까?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이 라는 것은 가격이 낮아야 되고, 두번째는 適正價格, 아까 公開競爭할 때 수준에 맞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85 %와 지금 99.5%는 14.5%의 差異가 납니다. 14.5%差異를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통 한 건에 내가 대충 보니까 평균 10億 정도의 손실이 날 정도의 손해를 국가가 봤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똑같이 99.9%로 했는데 擔當公務員은 豫定價格을 얘기한 것 없이 낮으면 했다라고 答辯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答辯을 해 주시고, 만약에 制度가 잘못 되었다면 制度를 고치도록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 疑惑을 살만하다면 분명히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見積에 의한 가격 결정은 우선 違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99.9%가 되었던, 99.999%가 되었던 이 規定에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價格決定이 99.8%, 99.9 %전부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정을 했거나,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答辯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契約 當事者가 아니기 때문에 答辯드릴 수 없고, 다만 이 法律에 의해서는 違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第32條의 부분은 契約 相對方이 없어서, 예를 들면 入札價格까지 隨意契約을 할 때 안 내려가 가지고 再公告를 해서 隨意契約을 할 때가 있습니다. 公開를 하다가 안 되어서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안 되었을 때 隨意契約을 할 때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 써 낸 사람하고 隨意契約을 하도록 그 規定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法の 違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法の 위반은 아니지만 항상 疑惑이 남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契約을 할 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委員님들 質問해 주십시오.

梁敬淑委員님 質問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財務局 會計課에서 提出한 내용 중에 歲計現金 전용 現況을 보면 94年度, 95年度 國民住宅事業費에 轉用을 하는 것이 399億원이 넘는군요, 한 400億원 이상이고. 住宅改良再開發費도 876億원, 거의 1,000億원에 가깝고, 都市開發事業費는 1兆원이 넘는 돈이 轉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特別會計나 一般會計도 轉用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문제는 特別會計와 一般會計가 계속적으로 수시로 巨額들이 많게는 수 백억원씩 하루에도 轉用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現金들이 轉用이 되고 있고. 또 轉用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轉用을 결정하는 決裁權者는 누구이고, 또 어떠한 기준과 節次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豫算들이 轉用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우리 擔當課長이 答辯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林綵瑾; 會計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資金의 轉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資金의 轉用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市에는 一般會計 하나, 特別會計가 열 개 그래서 총 11개의 會計가 있습니다. 각 會計마다 歲入과 歲出이 똑같이 豫算이 編成이 되어 있는데 어떤 會計는 歲入이 들어 올 것으로 豫想이 되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원래 목표대로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집행한 쪽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歲出의 要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住宅費 特別會計 같으면 예를 들어서 94年度 2月 15日까지 돈이 210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돈이 250億원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여유가 있는 다른 會計에서 住宅費 特別會計로 會計間 轉用을 시켜줍니다. 會計間 轉用은 서울特別市 地方財政法에 의해서 轉用을 시킬 때는 이자 없이 이 會計에서 저 會計로 또는 이 會計에서 이쪽으로 탄력적으로 運用하기 위해서 地方財政法 規定에 의해서 빌려 주고, 그 다음에 받아 간 그 會計에서 한달이고 보름이고 또 며칠 있다가 혹은 두 달 있다가 歲入이 들어오면 먼저 빌려 갔던 돈을 빌려 간 그 會計에 다시 변제를 시킵니다.

이것은 業務의 원활한 지출을 위해서 회계간에 상호 轉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轉用이라고 쓰는데 상호 돈을 빌려 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歲入이 들어오면 다시 辨濟해

주는 이런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資金 轉用도 역시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資金의 運用은 서울特別市資金運用에 관한 規定에 의해서 會計課長이 轉用을 해 주고 辦濟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쪽에 회계가 지출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지출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출을 못해 주고 있으니깐 옆에 있는 돈을 일시 빌려와서 갚아 주고 그 다음에 이쪽 會計에서 돈이 들어 오면 原 會計에 다시 갚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轉用을 할 수 있는 規定은 없습니까? 轉用은 어떤 規定에 의해서 轉用을 할 수 있고, 特別會計나 一般會計를 마음대로 轉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 바랍니다.

○會計課長 林綵瑾; 地方財政法 第6條 歲計現金의 轉用에 地方自治團體의 會計에 있어서 歲計現金의 부족이 생긴 會計는 同一會計年度에 한하여 다른 會計로부터 資金을 轉用할 수 있으며 轉用한 資金은 그 會計年度의 歲入으로 辦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轉用資金에 대하여는 利子を 붙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會計課長은 轉用을 할때 어떤 基準에 의해서 합니까? 會計課長이 전부 다 全權으로 轉用을 마음대로 매일 하는데 많을 때는 수천억원씩도 轉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논하는 사람 없습니까? 本委員이 알기에는 轉用이라는 것이 日間에만 轉用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轉用은 豫算의 轉用이나 資金의 轉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

런 資金의 轉用과 관계없이 제가 豫算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豫算의 轉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 전연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豫算의 轉用은

○梁敬淑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答辯 안 하셔도 되고, 財務局長한테 묻겠습니다. 一般會計하고 特別會計를 마음대로 수천억원씩 轉用을 하는데 會計課長에게만 모든 權限을 주어서 會計課長이 하루에도 수천억원씩 돈을 세계현금이 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회계간에 轉用을 하게 하고, 그런 制度에 대해서 財務局長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梁敬淑 委員; 課長이 모든 全權을 가지고 수천억원씩 轉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會計課長의 權限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會計課長이 수천억 뿐만이 아니라 資金을 支出하고 配定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全權을 가지고 있고, 또 市金庫를 監視, 監督하는 부분도 會計課長이 많은 全權을 갖고 있는데 委任專決規程 自體에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資金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運用을 하려면 課長 혼자서 모든 全權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運用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轉用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會計課長 혼자서 그것을 결정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本委員 생각하기에는 財務局長이나 또는 몇천억 이상일 경우에는 副市長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우리가 運營하고 있는 것이 委任專

決規程입니다. 예를 들면 市長님이 決裁해야 될 것을 市長님이 혼자 다 못하시니까 그것을 전부 委任을 해서 委任專決規程에 의해서 專決權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會計課長이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까지는 會計課長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判斷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해 오고 있고, 또 지금 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事故가 있다든지 돈의 轉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局長한테 올리면 물론 한 계단을 더 거치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權限을 可及的이면 下部로 委任하는 것이 현 정부의 趨勢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니고 可及的이면 자꾸 내리는 것이 추세입니다. 또 局長의 決裁範圍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局長을 하나 더 두어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事務配分の 問題, 그 다음에 責任의 問題에 따라서 委任專決을 했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廷義 委員; 지금 梁敬淑委員께서 轉用에 대해서 質問을 했는데 현재 規程에 의해서 專決規程에 의해서 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調査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직제상 會計課長에게 너무 業務가 偏重되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당일 당일의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決裁를 맡았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그것도 충분히 理解가 갑니다. 단. 그 하나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에게 偏重되다 보니까 轉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는 사후 확인이라도 되는 상황이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되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내가 몇년도라고 얘기를 알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住宅銀行과

商業銀行간의 관계를 상업은행에서 몽땅 빼다 주택은행에 넣어 버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럴 여지도 있겠지만, 意圖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런 면에서 資金管理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너무 한 사람에게 偏重되게 되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드러난 정기예금을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를 1年씩 방치한 것은 내가 볼 때는 意圖적으로 資金을 그렇게 放置해서 서울시의 財政에 損失을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偏重된 業務量, 이런 것 때문에 그런 決裁가 전부 會計課長, 물론 밑에 담당이 있습니다만 會計課長 專決에 의해서, 아까 내가 擔當者에게 물어 보았더니 資金의 內譯을 보고하면 會計課長이 결정을 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偏重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資金의, 물론 현재 職制에서 最善을 다했다고 하지만 직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損失이 왔고, 그런 過失이 왔다, 이런 결론에서 偏重되었다 이렇게 指摘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직제가 委任專決規程에 의해서 당연히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補完對策이 필요하다고 本委員도 같이 同意를 하기 때문에 梁委員이 본질적으로 質問한 내용이 그런 것으로 判斷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局長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완대책, 또는 사후확인 이런 것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本委員이 정리를 해서 같은 質疑를 하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이것이 上位

로 올라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責任問題는 局長이 더 比重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 있어서 責任과 權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로 자꾸 결재가 올라가면 과연 정확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副市長님 결재로 올렸다고 해서 副市長님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課長이 하는 線에서 그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決裁를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局長인 저만 해도 제가 원고를 하나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專決規程에 의해서 하는 決裁도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일이 5個 課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課長の 지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은 職級이 따로되어 있습니다만 시골 군수의 職級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職級입니다.

그래서 이런 職級들이 행하는 행위를 責任을 더 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그것을 課長보다 더 세밀히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체계를 보면 위로 높이 올라가면 더 따지느냐, 아닙니다. 아까 事務的인 問題를 市長님 決裁에서 다 빼고 있는 이유가 그런 사무적인 것은 밑의 實務線에서 전부 챙기고 市長님은 政策決定을 하는 것입니다. 局長도 사실은 政策決定 部署입니다. 그러면 實務部署는 課長級입니다.

東京都의 예를 하나 들면 우리하고는, 현실이 안 맞겠습니다만 東京都의 局長은 출근시간이 없습니다. 출근을 집에 있어서 어디 行先地만 알려 놓고 時間 中에 목욕도 가고 다 다녀요. 이것은 政治公務員입니다. 소위 政策을 決定하는 公務員이지 實務는 全部 課長以下 線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형태는 局長한테도 실무하고 정책결정이 겹쳐서 局長들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 調査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소위 預金の 選定 問題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처럼 앉아 가지고 이 預金이 1年짜리에 들어가 있는지, 6個月 짜리에 들어가 있는지 따질 수가 내가 있겠느냐. 그것은 사실 제일 정확하게 할 사람은 實務者입니다. 그러면 實務者가 왜 이것을 넣어야 한다는 이유서를 전부 붙여서 올리면 係長이 檢討하고, 課長이 한번 檢討하면 되지 局長이 앉아서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實務的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委員님들이 자꾸 提起를 하시길래 이것을 局長이 한번 決裁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政策的인 判斷이 필요하다면 되지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電算에 의해서 그런 判斷資料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未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資金轉用의 문제같은 것은 局長이 判斷할 것이 아닙니다. 어디 모자라면 남는 돈 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局長이 判斷한다고 더 잘하고 課長이 한다고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資金의 문제는 局長이 이것을 判斷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전부 해 보고 그때 判斷해서 꼭 올릴 필요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轉用의 問題 같은 것은 課長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네, 梁敬淑委員님 말씀하세요.

○梁敬淑 委員; 本委員이 그 문제를 提起했던 것은 轉用은 하나의 일례였고 本質인 質問은 이것입니다. 지금 資金을 擔當하고 있는 會計課長이나 또는 資金 擔當을 하고 있는 實務陣들이 상당히 專門性이 缺如되어 있다라는 것이 행정조사 과

정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資金 擔當公務員에게 업무가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會計課長이 할 수 있는 일이 委任專決規程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定期預金の 預置金額이나 期間이나 解止 등을 모두 혼자서 決定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 있고, 契約金額을 조정하는 것, 期間을 연장하는 것, 資金의 轉用 및 配定, 歲入, 歲出의 現金과 有價證券의 出納, 市金庫 監督 業務 등 너무나 많은 業務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문제가 발견이 안 되고 또 資金도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시켜줌으로써 잘 運營이 되었다라면 이런 문제를 提起할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봐도 서울시 資金運用上의 문제점들이 資金의 需要나 供給을 豫測하는 體系도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會計課長이 많은 權限을 가짐으로써 자의적으로 資金을 運用하고 있는 결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資金 配定에 있어서도 거의 會計課長이 이 부분을 全權을 갖고 있는데 각 區廳이나 事業所에서 소요자금, 필요한 資金을 전화로 당일 받아서 손으로 그것을 받아 적어서 은행에 通知를 하면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나가는 굉장히 원시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생각할 때는 지금은 電算化 時代, 팩스화 시대예요, 그러면 팩스로 필요한 資金 내역을 죽 적어서 올리고, 예를 들면 區廳에서 1,000億원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화로 그냥 함으로써 굉장히 자의적으로 運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資金 配分後에도 資金이 나갔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確認을 서울시 次元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決算書 하나로 그냥 대치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月別 資金支出 綜合

計劃書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月別 資金 支出 綜合計劃書を 1년에 한 번을 세워서 그냥 한번 세우는 것으로 計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세우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法에 資金運用 計劃書を 세우라고 하니깐 1년에 한번 세울 뿐이지 실제로 執行하고 있는 집행결과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計劃書自體가 無用之物化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資金이 얼마나 저번달에 잘 지출이 되었는지, 配定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또 그것을 會計課長이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問題點들이 드러났고 또 드러난 부분이 여러 가지예요. 滿期가 도래했는데도 또 滿期가 1년씩 지났는데도 전혀 체크도 안해서 방치되어서 많은 利子 損失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財務局長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利子率이 1%인 공금예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95年度만 해도 700餘億원의 돈이 이자 1%인 공금예금으로 預置가 되고 있어서 점점 더 공금예금의 比率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會計課長 혼자한테 너무나 많은 全權을 줌으로써 실제로 市民들에게 被害가 돌아가고, 資金運用이 效率的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利子損失額도 너무 많고, 또 資金運用을 效率的으로 體系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委任專決規程에 의해서 계속 公務員들께서 答辯하시는 것이 우리는 法대로 했습니다, 條例대로 했습니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過多한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집중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委任專決規程에 의해서 決定權限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문제점을 改革하겠다는 또는 문제점을 是正하겠다는 자세로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과정에서 드러나고 또 財務局長도 우리와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委任專決規程을 좀 바꾸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든지 또는 委任專決規程을 적어도 財務局에 관한한은 再檢討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겠다든지 그런 정도의 자세로서 이 부분이 答辯이 되고 자세로 임해야지, 委任專決規程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든 어찌됐든 決裁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局長이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어떻게 局長보고 더 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의 자세로 무슨 市政을 改革하겠다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鄭水華; 지금 梁敬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市金庫 調査하는 과정에서 역력히 드러난 것들 중에 사실상 會計課長의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소홀히 할 소지가 있고, 또 전문성 있는 職員들이 未備해서 資金部署를 확충하고 더 專門化시키자고 하는 내용으로 改善方案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計劃과 委任專決規程의 改善방안이 혹시 있는지 財務局長께서 명쾌하게 答辯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梁委員님께서 提示한 문제점은 저도 是認을 했고 거기에 代案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會計課

長이 業務가 집중되어서 못하면 課長을 하나 더 두어야 됩니다. 局長이 課長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局長의 일이 모자라면 局長을 하나 더 두어야 되고 그것을 副市長한테 局長의 業務를 미룰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職員이 모자라서 專門化되지 못해서 일이 미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職員도 늘리고 專門化 지금 하고 있습니다. 課長이 일이 많아 모자라면 課長을 하나 더 두어 가지고 課를 하나 더 만들든지 해야 되지 局長한테 올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局長이 이 문제를 判斷해야 될 부분이라고 判斷되면 제가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提示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職員들의 意識의 問題, 專門化의 問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체계를 그렇게 잡지 못한 부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을 같이 하고, 지금 전산 시스템도 도입했고 사람도 이미 한 사람이 들어와 있고, 전담 職員도 하나 두었고 전문 職員도 하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도 會計課長이 그것을 일이 많아서 못해 나간다면 課長을 하나 더 두어야 됩니다. 局長한테 결재가면 課長이 그 일을 결재 안하고 올라옵니까? 같이 決裁를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課長 그 業務는 그대로 다 그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制度的으로 맞지를 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내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局長이 判斷되어야 될 문제면 局長이 專決規程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네, 李廷義委員님.

○李廷義 委員; 이미 그것은 우리가 調査를 통해서 했고 또

거기에 대한 勸告決議案이 本會議 의결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일단 財務局長 責任下에 代案 提示가 있을 것으로 믿고 현재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促求하는 것으로 終結을 지었으면 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한 의지가 보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檢討할 사항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을 質問者인 梁委員에게 부탁을 하고 싶고, 효율적으로 지금 시간이 7時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終結을 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또 議會의 勸告決議案에 대한 答辯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促求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梁敬淑委員님.

○梁敬淑 委員; 本委員이 要請을 하는 부분이 局長이 모든 權限을 가지고 있어서 다 권한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면 局長의 국어 실력이 참으로 모자라고 水準 이하라고 밖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本委員이 요청을 하는 것은, 또 요구를 하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은 局長이 모든 權限을 가지고 局長 혼자서 다 全權을 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체계적이고 또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檢討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委任專決規程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면 그것조차도 再檢討를 해서 방향을 課長을 더 둔다면 課長을 더 두는 방향으로 하고, 專門家를 두세 명을 더 두어야 되는 것이 效率的이라면 專門家 두세 명을 더 두고, 電算化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는 判斷을 한다면 電算化시스템을 導入하라는 의미였지, 局長 혼자서 그 부분을 다 責任지고 局長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모든 일을 남의 일까지 빼앗아서 하라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答辯하시면 국어 실력이 수준이하예요.

○財務局長 權五虎; 좋습니다.

○梁敬淑 委員; 答辯은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촉구하는 것으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水華; 李廷義委員님.

○李廷義 委員; 隨意契約 문제에 대해서 아까 答辯한 것하고 내용하고 달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契約擔當者가 누구지요, 責任者가 직접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는 見積價格을 받는다고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隨意契約을 할 때 當事者와 價格이 다운될 때까지 對話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契約에 보면 見積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課長님하고 局長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實務者의 입장에서 자세히 부연 說明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入札의 경우에는 隨意契約이나 一般競爭이나 막론하고 設計價格 對比해서 經理官께서 사정을 하셔서 豫定價格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豫定價格을 정해서 公開競爭入札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에서는 豫定價格을 10통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두 公開를 하게 되어 있지요. 隨意契約의 경우에는 豫定價格을 하나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經理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資料을 해 드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하고, 몇월 며칠날 언제 契約當事者한테 저희가 通報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게 되면 우리가 入札書 대신, 競爭入札에서는 入札書라는 것을 주지만 隨意契約에 있어서는 見積書라는 것을 줍니다. 見積書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理解를 하실 거예요. 業體에서 주는 가격이 얼마냐, 그런 見積書가 아니고 입찰서 대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무는 工事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까지 契約을 해 줄 것이냐 해서 入札書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때 가서 豫定價格을 뜯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豫定價格을 모르거든요. 豫定價格을 뜯게 되면 豫定價格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契約金額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豫定價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見積을 내 주십시오 해서 다시 줍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그 자리에서 줍니까?

(「네, 그 자리에서」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그러면 그 豫定價格을 뜯을 때 상대방이 봅니까?

(「못 보지요」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못 보죠?

(「그것은 절대 못 봅니다. 그래 가지고 豫定價格이 점점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그러면 豫定價格이 안 되면 열 번이라도 계속합니까?

(「그렇습니다. 豫定價格에서 단 10원짜리라도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契約金額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지금 擔當者께서 설명을 주 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豫定價

格을, 내가 아까 指摘했던 99.9 %가 몇 번 정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統計上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우리 市에서는 委員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소규모 공사 그리고 영선공사 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資料는 거의 다 우리 資料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本部라든가 우리 것은 몇 件안 될 것입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다시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答辯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는 해당부서에서 隨意契約으로 결정해서 經理官이 한다고 했는데 隨意契約 入札方法까지도 本部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그러면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契約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도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報告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部署에는 經理官이 계시거든요. 우리 本廳에도 財務局長님이 經理官이시고 또 本部는 本部長, 事業所는 事業所長 이런 체제로 經理官 制度가 있습니다. 經理官 責任하에 契約을 하는 것이지, 우리 本廳에서 일괄적인 契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契約部署가 있는가 하면 사업을 主管하는 部署가 있어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種類라든가 어떤 기간이라든가 難易度라든가 이런 規模를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判斷을 해서 一般競爭入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수성이 있다든가, 前次 공사하고 하자 책임 불분명이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공사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다른 사항으로 공사를 못하고 또한 어떤 긴급事項이 있다거나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오늘 報告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事項일 경우에는 긴급사항으로 해서 불가피 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契約方法 자체를 우리 會計課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主管하고자 하는 部署…….」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部署 經理官이.

「部署의 經理官이 아니고요, 部署長이. 그러니까 本廳 같으

면 局長 또는 課長님이 각 部署別로 정하고, 本部는 本部別로 部長이라든가 本部長들께서 결정을 하셔서 가지고 이것을 隨意 契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一般競爭入札로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정해 가지고 경리부서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면 그것이 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의거해서 契約을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결재를 해서 본부 경리관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자체는 다 거기에 보관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여기는 없지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資料만 財務局에서 총괄 管理해서 報告한 것이지 실제 모든 서류가 거기에 다 있다 그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確認을 해서 隨意契約한 내용 자체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都市施設安全管理本部에 通報를 해서 서면으로 직접 委員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그러시면 아까 財務局長께서 통상적인 法規에 의한 契約 自體는 瑕疵가 없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99.9%라는 것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本委員도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財産을 보호하고 이런 면에서 憂慮를 금치 못하기 때문에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隨意契約한 사항에 대해서 隨意契約으로 指定하게

된 根據書類와 그 다음에 落札했을 때 관련된 서류, 쉽게 얘기하면 見積書を 몇 번 받았는데 몇 번 받을 때까지의 서류. 이런 구체적인 서류. 제가 지금 疑惑을 품고 있는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部署 것을 저희가 해 드리면 될까요?」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여기에 보면 隨意契約으로 해서 전부 99점 몇 %가 나온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機關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代表的으로 아까 말씀드린 都市施設安全管理本部 그쪽이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委員長代理 鄭水華; 李廷義委員께서 어떤 한 機關에 대해서만 몇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어디 몇 번. 몇 번 번호를 정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參考 삼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都市施設安全管理本部가 집중적으로 나란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李廷義委員께서 번호를 지정해 주시고.

○李廷義 委員; 그러면 都市施設安全管理本部 것하고 文化課 323번, 그것 두 가지만 해서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金信浩 委員; 李廷義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중에 금방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그중에서 豫定價格을 직접 기재해 넣는 사람, 결정하는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金額에 따라서 다른데 本廳 같으면 3億원 이상짜리는 局長

님이 經理官이 되시기 때문에 局長님이 최종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3억원 未滿의 경우에는 分任經理官한테 서울시財務會計規則 第3條 規定에 따라서 委任이 되어 있습니다. 分任經理官인 會計課長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財務局 같은 경우는 財務局長 아니면 會計課長.

(「네, 그런데 우리 本廳의 경우에는 소규모공사, 자질구레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규모공사가 없습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3億원 이하는 會計課長이 豫定價格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委員長代理 鄭水華; 더 이상 質問 없으십니까?

質問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李廷義委員과 梁敬淑委員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資料들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질의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局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財務局에 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에 誠實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監査에서 指摘된 各事項에 대하여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是正해 주시고. 반복된 施行錯誤로 인해서 市民들의 不平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委員들이 질의한 내용 중 書面으로 答辯하기로 한 事項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提出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財務局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를모두 마치겠습니다.

財務局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終了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01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文錫珍 鄭水華 李亮漢

金廣洵 金信浩 金洪奎

白南善 梁敬淑 李廷義

黃仁明 朴南植 金勝子

○專門委員

安錫洙

○被監査機關參席者

財務局長 權五虎

會計課長 林綵瑾

財產管理課長 權赫模